

지배와 예속, 전횡과 약탈을 위한 조약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 체결 68년이 되는 것과 관련하여—

10월 1일은 미국과 남조선 사이에 《호상방위조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68년이 되는 날이다.

조선전쟁이 끝난 후에도 미국은 남조선에서 자국군대를 철수시킬 대신 남조선을 영구 기뢰로 덮고 동북아시아 지배와 복침을 위한 전초 기지로 삼기 위해 이 조약을 만들어냈다.

이 조약에 의해 미국은 저들이 필요로 하는 남조선의 지역의 지역을 미군기지로 삼을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수많은 미군기지가 남조선의 좁은 땅덩어리 위에 거미줄처럼 촘촘히 들어앉게 되었다.

미국이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게 되면서 남조선당국은

인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진 친분학적역수의 《방위비》를 해마다 미군에 넘겨버려야 하였다.

폐기된 미군기지의 독오물, 쓰레기들을 제거하는 것도 남조선의 몫으로 되어있다.

《동맹》이라는 사슬에 꿰어 미국이 일으키는 전쟁터, 분쟁마당들에 남조선의 청장년들을 《대포망》으로 보내야 하였다.

침략적이며 예속적인 남조선미국 《호상방위조약》으로부터 후날에는 남조선 감점 미군의 치외법권적인 《지위》를 합법화한 남조선미국 《행정협정》이라는 것도 생겨났다.

미국이 《행정협정》이 어떤 치욕적인 《협정》인가 하

는 것은 미선이자 효순이를 장갑차로 무참히 깔아죽인 미군범죄자를 저들 법정에서 《무죄》로 선고하고는 본국으로 빼돌려 남조선인민의 거센 분노를 산 2002년 6월의 두 녀중학생 학살사건만으로도 충분할 것이다.

이렇게 남조선의 땅도, 사람도, 주권도 미국이 마구 주무르려 하는 것이 바로 《한미 호상방위조약》이다.

남조선의 보수세력을 비롯한 한 종미세력에게는 그 조약이 명줄을 부지하는 《부작》 같은 것일지는 몰라도 절대다수의 남조선인민들은 불평등조약, 치욕의 노예문서로 여긴다.

그 조약은 위험천만한 전쟁

문서이기도 하다.

《호상방위》의 명목으로 남조선에서는 해마다 미국과의 합동군사연습이 벌어지곤 한다.

《팀 스피리트》, 《연합전시중원연습》, 《올지 포커스 렌즈》, 《올지 프리덤 가디언》, 《키 리졸브》, 《독수리》... 명칭은 여러번 바뀌고 그 규모나 방식도 달라졌지만 절대로 달라지지 않은 것이 있으니 합동군사연습의 침략적, 도발적 성격이다.

전쟁연습, 다름아닌 제2의 조선전쟁을 넘두에 둔것이고 공화국을 침략하기 위한 전쟁시연회, 전쟁예비연습이라는 점이다.

그 전쟁연습들에서 《선제

타격》, 《평양정경》, 《참수작전》과 같은 흉악한 음모들이 실전화되고있다.

남조선을 강점하고 전조선을 지배하려는 미국의 침략 야망을 실현하기 위한 책동은 《합법》의 모자를 씌워주는 도구로 리용되고있는 것이 바로 《한미호상방위조약》이다.

조약에는 《본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명기되어있다고 한다.

이것은 남조선을 침략적군사기지로 삼고 영구히 타고 앉아있으려는 미국의 본심을 드러내보여주는 것이다.

남조선에서 반미의 함성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다.



최근 남조선언론 《CBS》가 행진시 남조선을 극동 최대의 핵무기국으로 만든 미국의 책동자료들을 폭로하였다.

《남조선은 핵무기전시장과도 같았다》

— 남조선언론이 보도 —

언론은 미국이 핵무기의 남조선배치와 관련한 기록을 철저히 숨기고 비밀해제된 자료들에서도 민감한 정보들을 삭제하였지만 미국정부기관

과 연구기관들의 각종 자료들과 미군부대들의 감각 등에서 미처 삭제되지 못한 자료들과 전문가들의 증언 등을 종합분석하여 미국이 조

선전쟁직후부터 남조선에 핵무기배치를 검토하고 실제로 거의 1000기에 달하는 핵무기를 남조선감점 미군기지에 배치하였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1956년 11월 1일에 작성된 《국동군사령부 운영절차》를 통해 미국이 경기도 안양과 의정부에 핵무기를 배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단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훈련과 조종사 1명이 1대의 공군기를 타고 표적에 핵무기를 투하하는 비행훈련을 진행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보도하였다.

《CBS》는 이러한 자료들과 함께 미국의 핵무기시설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종합분석하고있다고 하는 미국과학자협회의 핵정보관련 국장과 한 인터뷰내용도 함께 공개하였다.

인터뷰에서 그 국장은 《남조선은 마치 핵무기전시장과도 같았다. 가장 많을 때는 8종의 핵무기가 배치됐다. (어니스트 존) 지상대 지상핵미사일, (마타도르) 핵순항미사일, AMD핵지뢰, 280mm핵직사포, 203mm핵직사포, B61핵폭격기용핵폭탄, (나이키 헤르클레스) 대공 및 지상대지상핵미사일, 155mm핵직사포가 차례로 배치됐다. ... 이것은 당시 이

우나라가 보유하고있던 핵무기전체량보다도 5배가 많은 수자였다.》고 발언한데 대해 언론은 전하였다.

본사기자

연은 미공군의 비밀문건을 통해 군산미공군기지에 전개되어있던 미8철술비행단이 1991년 상반기에 조종사들이 여러 종류의 핵공격수

리현 일

지지를 에 비낀 남녘민심

— 남조선언론, 전문가들의 주장 —

남조선에서 다음이 《대선》후보들이 자기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온갖 모지를 다 쓰고있지만 어느 누구도 민심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있는데 대한 언론들의 보도가 늘어나고있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근 북수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중에서 중도, 무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져 역대 최고수준을 보이고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대선경선에 돌입하면서 각종 여론조사결과들이 나오고있지만 눈에 띄는 후보가 없이 혼전양상이

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매일경제》도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대선판세가 오리무중이다. 여야모두 지지를 1, 2위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수준인데다가 유력후보들을 중심으로 각종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지하는 정당도 없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민심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10대,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층은 무려 44%나 되며 여야당에서 비교적 앞자리

를 차지하고있다는 후보들에 대한 이들의 지지율도 작 23%, 14.4%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남조선언론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최근 북수의 여론조사에서 전체 유권자중에서 중도, 무당층이 차지하는 비율은 계속 높아져 역대 최고수준을 보이고있다.》, 《여야가 본격적으로 대선경선에 돌입하면서 각종 여론조사결과들이 나오고있지만 눈에 띄는 후보가 없이 혼전양상이

다.》고 보도하였다.

남조선의 《매일경제》도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대선대선판세가 오리무중이다. 여야모두 지지를 1, 2위후보간 격차가 오차범위수준인데다가 유력후보들을 중심으로 각종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지하는 정당도 없다.》고 전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어느 누구도 민심은 물론이고 전통적인 지지층으로부터도 압도적인 지지를 받지 못하고있다는 것이다.

얼마전 남조선의 한 여론조사기관이 10대, 20대 청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각종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무당층은 무려 44%나 되며 여야당에서 비교적 앞자리

년의 투표현황까지 어떻게 어질지에 대해 남조선의 정치분석가들은 《지금은 아직 국민들이 후보자를 판단할 시기가 아니다. 이번에도 막판까지 가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설민심에서 대선여론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

평하였다.

정계의 한 인물은 연이어 터져나오는 여야 《대선》후보들의 부정부패의혹이 지지층에 영향을 미치고있다고 하면서 《유력대선후보들이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보다 뭐가 터지느냐가 변수》라고

말하였다.

사실들은 선거개입사건,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을 비롯한 각종 부패사건과 관련되어있는 정당들과 그 후보들에 대한 민심의 평가가 어떤것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남조선인민들이 평한것처럼 원래 온갖 탐욕과 부패는 보수의 장기가 아니었던가.

《차떼기》, 《안동》, 《세풍》 등은 물론이고 리명박의 BBK주가조작사건, 내곡동맹투기사건, 박근혜의 특대형부정부패사건 등으로도 충분한 설명이 된다.

남조선민생은 지금 바람앞의 초불과 같은 형편이다. 하지만 시정배들은 민생은 뒤전에 두고 눈앞의 리익과 권력을 위해 서로 물고뜯기에 여념이 없다.

둘쨰면 들출수록 구린내가 풍기는 것이 두껍더미인것처럼 《국민의힘》을 파헤칠수록 부패의 악취가 물씬 풍긴다.

두껍은 발에 나가면 보약이 되지만 부패는 사회에 나가면 독약이 되는 법이다.

심철민



들출수록 구린 내 나는 보수야당

역시 전쟁대결당, 사대(賣國)당이다

남조선의 《국민의힘》 《대선》후보들이 외교안보정책공약이라는것들을 발표하고있다.

뒤 특별한것은 없고 늘 고야대던 미국과의 《동맹강화》, 《합동군사연습복원》, 《국제공조》와 같은 반동일, 반민족적인 궤변들이어서 까마귀 백번 울어도 가옥 소리라는 말을 다시금 실감하게 하였다.

지난달말에 있는 TV토론회에서는 느닷없이 《작전계획 5015》 소리가 튀어나왔다고 한다.

—문: 《작계 5015》가 발동되면 《대통령》은 제일먼저 뭘 해야 하나?

—답: 일단 미국에 전화부터... 홍준표의 물음에 대한 윤석열의 대답이다.

이 하나의 사실만으로도 전쟁대결당, 사대공조당의 본색이 어떤것인가를 잘 알 수 있다.

이미 《공개전 비밀》인 《작전계획 5015》는 《전면전》을 가사한 《작전계획 5027》과 《북의 급변사태》를 가정한 《작전계획 5029》, 공화국의 전략적대상들에 대한 공중타격위주의 국지전계획인 《작전계획 5026》 등을 통합한것이다.

특히 유사시 동족에 대한 《선제타격》과 《참수작전》, 《평양정경》 등과 함께 《탐지, 방어, 교란, 파괴》의 《4D작전개념》이 반영된것도 《작전계획 5015》의 특징이라고 한다.

남조선에서 해마다 봄, 가을에 벌어지는 대규모의 전쟁연습들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되고있으며 막대한 혈세를 탕진하여 진행하고있는 첨단무기의 개발과 구입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남조선의 어느 한 군사전문가는 《한미는 그동안 평양의 주요지휘

부와 낭만핵시설, 북전역에 있는 주요 미사일기지들만 폴라네 《죽집계식》으로 타격하는 연습을 집중적으로 실시해왔다.》, 《2019년부터는 (수북지역에 대한 치안, 질서유지)와 (안정화작전)까지 포함되었다. 이것은 (유사시 북침령)을 의미하는것이다.》라고 밝힌적이 있다.

이러한 북침전쟁계획, 핵전쟁계획을 홍준표가 꺼내들었다는것은 그의 머리통속에 온통 동족대결만이 짙 들어차 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대선》후보로 나선 기획에 자기의 《안보관》을 광고하여 보수세력의 지지표를 끌어모아보려는 수작인 것이다.

대결로 몰아야하는 홍준표도 그리 하지만 윤석열은 또 어떠한가. 넘어지면 누가 자기를 봐달라고 울기부터 하는 철부지처럼 《비상시국》이면 미국에 먼저 전화를 하겠다니 친미사태가 얼마나 골수에 차있는가를 여실히 드러내지 않았는가.

극악한 전쟁광신자, 반민족, 반동 일적인 무지무도한자들을 《대선》에 비후보로 내세운것이 바로 《국민의 힘》이다.

오죽하면 《국민의힘》 《대선》 예비후보들의 외교안보정책공약들에 대해 남조선 각계 《철부지팔복대장들의 전쟁놀이공약》, 《통일해방공약》, 《미친 공약》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였는가.

하기는 달리 말할수도, 달리 될수도 없는것이 바로 《국민의힘》과 같은 남조선의 보수세력이다.

친미사태와 동족대결, 분열과 매국에 기생하며 버리지않는 목숨을 부지해온것들에서 올바른 말을 기대한다는것은 까마귀의 주둥이에서 피골사의 노래를 바라보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정필

요즘 남조선선거판을 들여다보면 터져나오는것이 부패다보고 들리는것이 각종 추문들이다.

선거초반부터 여야당사이, 후보들은 또 후보들끼리 비방전, 폭로전이 란무하여 한차례의 전쟁을 치르고있는것같은 형국이다.

그속에서 그 무슨 처가부정부패사건, 《X파일》, 불륜설, 막말 등 가지가지의 부패의혹들과 추문들이 득러진 홍수마냥 쏟아져나와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귀를 어지럽힌다.

최근에는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이라는것을 둘러싸고 여야당이 대판들이 드잡이를 벌리고있다.

문제의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이란 현재 여당의 《대선》예비후보인 경기도지사 리재명이 성남시장으로 재

민이다.

그는 윤석열이 들고나온 부동공약의 내용과 수자가 자기의 공약을 그대로 표정했는지라고 하면서 사퇴까지 주장하고있다.

가만있으면 《돌고래》 윤석열이 아니어서 그는 그대로 류승민이 지난 《대선》 때 다른 정당후보의 공약을 그대로 써먹은 사실을 까밝히며 공약표절의 명수는 오히려 류승민이라고 맞박아

쳤다.

공약에도 저작권과 특허권이 있느냐 하는 윤석열의 주장 또한 사람들을 웃기는것

나섰다.

이에 뒤질세라 또 다른 후보도 로조문제에 대한 홍준표의 공약이 여당후보의것과 꼭 닮았다, 《인기몰이식 공약》이라고 깎아내렸다고 한다.

가관은 윤석열이 공약내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왕창같은 대답을 하여 사람들이 아

파헤칠수록 풍기는 악취

직할 당시 대장동일대에 주택지구를 개발하면서 《화천대유자산관리》라는 특검업체에 특혜를 주고 그 대가로 부당한 리득을 얻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사건의 중심에 여당후보가 있다고 떠들면서 《국정조사》와 《특검》을 들고나오고 보수언론과 전문가들도 《단군리커의 최악의 부정부패사건》이라고 부채질을 해대고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국민의 힘》 후보 윤석열의 선거부정개입의혹사건으로 정국이 혼들리고 민심이 혼용해져서 이를 수습하고 사태를 억지시키기 위해 《국민의힘》이 들고나온것이 바로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이라는 설이 나온다.

이 사건에 대한 소리가 나돈지 며칠도 안되어 의문점을 풀만한 부패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다.

《국민의힘》 의원 광상도의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퇴직금으로 수십억원에 달하는 엄청난 돈을 받았다는 것이다.

더우기 그 배경에는 박근혜 집권시기 청와대인정수석이었던 아버지의 직책이 작용하였고 또 광상도도 2016년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의 주요관리들과 모종의 관계를 형성하였다는 사실들이 언론을 통해 밝혀지면서 화산은 《국민의힘》으로 집적되었다.

이들뿐이 아니다. 홍준표 역시 윤석열의 주택공약이 여당후보들의 공약에 그대로 옮겼었고 그의 다른 공약은 자기가 주장한것과 유사하다고 비난해

었다.

광상도가 급기야 탈당을 선언했으나 《국민의힘》은 《도마뱀꼬리자르기》식이라는 비난을 피할수 없게 되었다.

여당은 광상도만이 아니라 《국민의힘》의 모모한 인물들이 이 사건에 여러가지로 연관되어있다고 주장하고있다. 실제로 윤석열과 그의 장인도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자료가 또 등장하였던 것이다.

광상도도 윤석열도 《국민의힘》 전체가 아니라 손사래를 치지만 남조선민심은 대장동개발특혜의혹사건에서 보수의 부패와 음모를 직감하고있다.

연계 한 것이다.

남의것을 훔쳐왔으면 분칠이나 잘하든지, 완전히 소화시켜 제정처럼 만들든지 해야 할것인데 내내용도 변변히 모르니 참 야단인것이다.

오죽하면 토론회를 본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속에서 《윤석열은 자랑후보들의 주요공약을 토씨 하나까지 그대로 베껴 번복을 하고있다.》, 《줄속출마로 인기몰이에 급급하다 결국 《표절맞집》으로 등극했다.》,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윤석열 후보, 박근혜보다 더하다. 자기 공약의 내용도 모르는